林業構造와 山林所有의 問題點과 對策

李 廣 遠
責任研究員, 土地經濟室

Ⅰ. 林業·山林·山村
Ⅱ. 高度經濟成長과 林業構造
Ⅲ. 山林生產基盤과 經營形態
Ⅳ. 對策 및 結論

Ⅰ. 林業·山林·山村

그간 우리 나라의 林業政策은 山林의 造成 및 育成을 중심으로 하는 生產政策이었다고 볼 수 있다. 山林의 利用과 開發을 중심으로 하는 支援政策으로서 稅制, 金融, 貿易, 市場 등 종합적인 林業政策의 범주에서 다루어 오지는 못했다. 林業은 山林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만 山林은 이를 保育 管理하는 사람과 山林이 존재하는 土地와의 有機的 關係에서 生產活動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林業 및 山林政策은 土地와 人間과의 相互關係 속에서 유지되며 生產活動이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林政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農林家가 그 核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產業으로서의 林業과 生產對象으로서의 山林과, 管理者로서의 山村(山主)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간의 農業政策이 產業으로서 農業을 중시한 나머지 農村과 農民에 대한 정책을 소홀히 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林業政策 또한 產業으로서의 林業, 소위 山林의 造成과 保護라는 측면(生產政策)만을 중시해 왔다. 山林의 직접적 管理者이고 政策受容者인 山村과 山地에서 勞動力 提供者로서의 山村住民에 대한 政策은 소홀히 해 왔다.

또한 產業으로서 林業이 존재하려면 產業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所得이 地域住民의 所得向上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 所得이 貨幣的이든 非貨幣的이든 地域住民의 福祉向上에 공헌할 때 地域產業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며 公共投資의 妥當性도 갖게 된다.

특히 급속히 변모하는 經濟社會的 변화 속에서 새로운 產業社會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對策이 강구되지 않으면 疎外產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그간 우리 나라의 山林이 많이 푸르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綠化爲主의 生產政策이 급속한 經濟構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 本論文은 韓國農村經濟研究院 主催 "2000年을 향한 새로운 林業發展方向 세미나"(1984. 4. 3)에서 發表한 論文을 補完再整理한 것이다.

대처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生産政策으로서의 林政은 잘 추진되어 왔을지는 모르지만 政策受容者인 山村·山主는 經濟構造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構造的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本稿는 經濟發展에 따른 林業構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특히 山林所有의 構造的 變化에 따른 問題點과 對策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高度經濟成長과 林業構造

1. 木材産業의 發展과 外材輸入의 충격

우리 經濟는 70年代의 高度 經濟成長期를 지나면서 많은 社會經濟的 構造의 변동을 가져 왔다. 輸出主導型 輕工業의 집중 육성으로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農水産業의 비중이 1960年의 41.4%에서 1983년에는 14%로 낮아졌다. 반면 重化學을 중심으로 한 製造業部門의 성장으로 우리 經濟는 高度産業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輸出主導型 産業構造로의 移行은 우리 경제를 高度經濟成長期에서 開放經濟體制로의 이행을 강요하고 있다.

高度成長期의 韓國經濟가 林業部門과 山村地域에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原料로서의 값싼 木材와 生産手段으로서 勞動力의 안정적 공급이었다. 이 기간 동안 輸出産業으로서 木材産業의 급속한 성장은 韓國林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1960~70年代의 合板産業을 중심으로 한 製材, 製紙産業 등의 木材多消費産業의 발전은 심각한 原料問題를 야기시켰다. 이는 결국 外材의 多量輸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木材의 海外依存度를 심화시킨 원인이 되었으며 國內材의 自給率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더우기 工業用材에 收率이 높은 大徑材가 사용됨으로써 自給率上昇에 구조적 한계를 가져왔다. 國內 生産材는 小徑材이어서 工業用材로서의 需要가 전무한 편이다. 大徑材가 木材需要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어 木材産業에 큰 변화가 없는 한 自給率上昇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내 山林生産을 아무리 높여도 海外 大徑材의 輸入은 불가피하다. 특히 木材産業 시설의 대규모화와 大量生産體制는 外材 大量輸入時代를 맞게 하였다. 이는 값싼 外材를 중심으로 한 木材市場을 형성하게 되었고 價格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값싼 木材價格條件下에서 山林收益性을 예상하고 山林을 경영할 사람은 없다.

또한 木材輸入이 綜合商社 또는 大木材會社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商業資本들이 木材流通過程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林業生産은 市場의 有利性을 확보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즉 伐出生産過程에서는 生産量의 축소뿐 아니라 伐出資本간에도 소형 伐出資本이 몰락하고 있으며 소수의 大型化가 진행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育林過程에서도 造林面積이 감소〔民有林 自力造林 1970년(92千ha)→1981(43千ha)〕되는 등 침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木材市場에서 비교적 높은 價格으로 거래되던 國內産 小徑木이 輸入材와의 경합으로 木材市場에서 자리를 잃게 되었다. 木材産業의 大規模化는 국산 小徑木과 間伐材의 需要를 감퇴시켰으며 木材消費構造를 小徑材에서 大徑材로 변화시켰다. 外材의 大量輸入은 小規模林業뿐만 아니라 大規模層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고 造林投資를 회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곧 貧困하의 풍요라는 二重的 林業構造를 창출케 하고 있으며 국내재 林木價格의 하락은

林業生産意慾을 감퇴시켜 林家의 적극적 林業經營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2. 山村의 過疎化와 林業資本形成의 未備

國民所得 증가에 따른 燃料革命은 林家의 山林副産物 소득의 정체를 가져왔다. 燃料材로 주로 이용되던 間伐材나 가지치기材의 需要減退로 育林生産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 山村勞動力의 移出로 山村勞賃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林業經營費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체 山林面積의 80% 정도가 Ⅱ齡級 이하의 山林으로 間伐 등 적극적인 撫育管理期에 해당되고 있다. 앞으로 20여년 동안 상당량의 勞動力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충분한 撫育管理가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 나라 山林生産力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山林勞動力 需要增大에 따른 山村勞動力 需給不均衡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勞動力不足은 적은 資本과 영세한 山林面積을 중심으로 한 集約的 山林經營의 한계를 뜻한다.

전체 經濟내에서 林業의 상대적 比重減少는 民間投資뿐 아니라 公共投資 減少의 원인이 되었다. 山林投資는 投資資本의 長期懷妊性 등으로 公共投資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山林生産性 저하로 投資妥當性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근간에는 山地資源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 증대로 山林資源의 效率的 利用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보다 生産性이 높은 草地 등으로의 他用途轉用 압력까지 받고 있다. 한 마디로 林業部門은 林業을 둘러싸고 있는 內外部의 압력으로 구조적 진통을 안고 있다.

이러한 林業生産의 전개과정은 山村經濟構造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地域이 광대한 山林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山林에서 거의 所得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山村農家의 相對的 所得隔差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所得源을 찾지 못한 人口流出로 山村의 過疎化가 심화되고 있다. 山村地域의 人口流出은 값싼 山林勞動 供給構造의 붕괴를 의미하며 林業資本의 遊休化 가능성마저 있다. 결국 內外的으로 부딪치고 있는 構造的 壓力은 林業—山林—山村을 하나로 포용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分解시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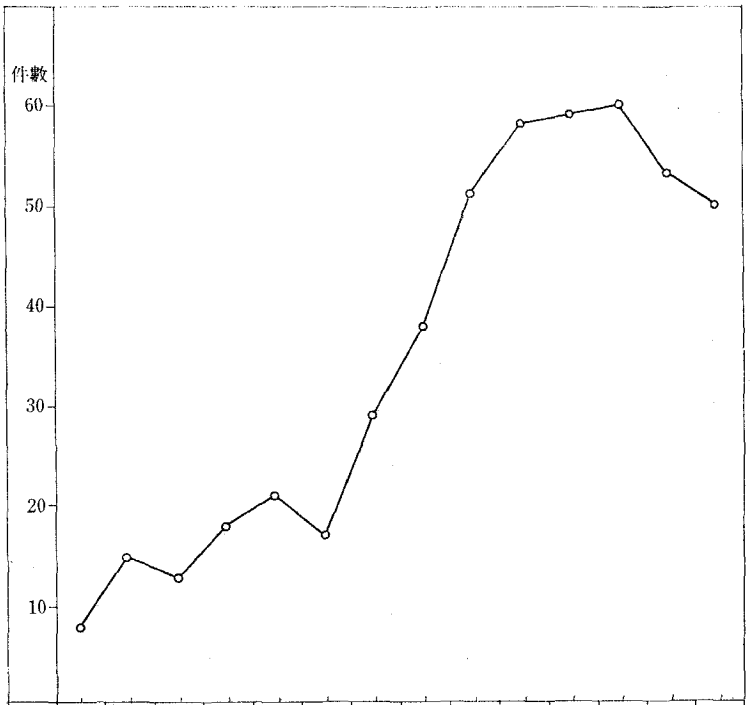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 經濟는 貿易自由化에 기본을 둔 開放經濟體制로 이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곧 林産物輸入의 自由化를 의미한다. 開放經濟體制가 農林業에 요구하는 것은 값싼 農林産物과 勞賃이다. 결국 林業, 山林, 山村이 계속 부딪쳐야 할 문제는 市場經濟에 입각한 資源配分의 合理化라는 명목 아래 소위 값싼 林政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林業部門이 헤쳐 나가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要求에 林政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3. 山地의 投機化와 公的規制의 增大

高度成長에 따른 土地資源價値의 증대로 山地의 投機化가 深化되고 있다. 본래 山林資源은 그의 土地資本보다 立木成長에 의한 期待收益이 클 때 山林投資가 유발된다. 이는 立木生長量이 土地資本의 일정 利子率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여 成長林木의 가치가 土地資本의 地代補償을 초과할 때 정상적인 林業生産이 가능하다.

그간 高度成長으로 축적된 民間資本이 79年 이후 減速經濟로 이행되면서 많은 遊休資本時代를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採算性이 없는 부분이 정리되는 한편 採算性 있는 새로운 부분으로 진출이 시도되는 등 民間金融構造의 再編成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投資對象을 찾

그림 1 山林所有移轉件數와 面積推移



年度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移轉件數	8	15	13	18	21	17	29	38	51	58	59	60	53	50
面積(ha)	10.6	21.3	12.1	15.9	24.3	13.4	22.1	24.3	30.5	31.2	29.7	33.0	27.1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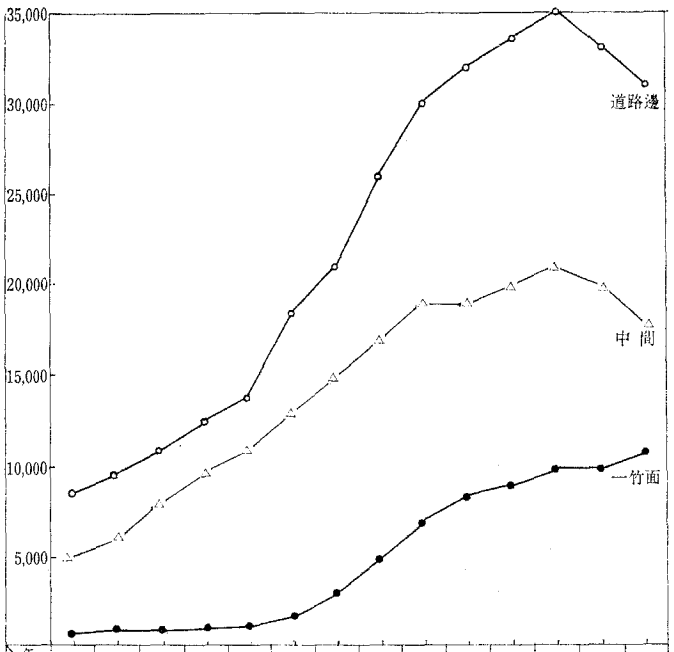
資料 : 京畿道 安城郡 孔道面 3個 部落 林野登記簿調査(1983. 10)

지못한 상당량의 遊休資本이 1979년 이후 높은 인플레 期待心理와 함께 土地의 投機化를 촉진하였다. 1950~60년대의 山地價格은 큰 변동없이 비교적 낮은 價格水準을 유지하였다. 낮은 木材價格과 勞動力移出로 山林利用에 대한 일반의 關心이 적었기 때문에 投資價値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각종 開發計劃의 추진과 遊休資本의 投機化過程에서 무엇보다 값싼 山地가 投機의 대상이 되었다. 山地는 所有의 제한이 없고 管理를 하지 않고 放置해 두어도 制度上의 제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山地投機는 1975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 전국적인 土地投機 붐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례로 安城郡 일부면의 경우 1970년부터 1983년까지 14년 동안 전체 林野面積 385ha 가운데 38.7%에 해당하는 149ha의 林野所有가 변경되었으며, 總去來件數는 490건에 總去來面積은 328.7ha 나 되었다〈그림 1〉. 특히 1979년, 80년 대폭적인 物價上昇과 함께 投機的 성향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로 인한 山地價格은 道路邊의 경우 1970년 대비 1984년 현재 3.2배 상승하였다〈그림 2〉.

資本의 非農林業的 土地 장악은 農山村의 地價水準을 폭등시킴으로써 林業의 再生產構造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林業生產의 기피와 投機

그림 2 山 林 地 價 推 移 단위 : 원/坪



年度 / 地域	70-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道路邊 1)	8,800	9,500	11,000	12,500	14,000	18,500	21,000	26,000	30,000	32,000	33,500	35,000	33,000	31,000
中 間 2)	5,000	6,000	8,000	9,500	11,000	13,000	15,000	17,000	19,000	19,000	20,000	21,000	20,000	18,000
一竹面 3)	700	750	750	800	1,000	15,000	3,000	5,000	7,000	8,500	9,000	10,000	10,000	11,000

資料 : 1) 2) 京畿道 安城郡 孔道面 兩基里 現地調査. 3) 京畿道 安城郡 一竹面 平均價格(上級).

化를 부채질할 것은 뻔한 일이다.

최근에는 産業施設의 확충과 무분별한 개발로 公害問題가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으며 環境問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山林의 公益的 機能에 대한 需要增大에 따라 山林의 公的規制가 늘어나고 있다. 都市周邊의 그린벨트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댐 築造에 따른 水源涵養林, 公園林 등 公益을 위한 土地利用 제한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公的規制로 施業이 제한되어 있는 山林面積이 1,607千ha 로 전체 山林의 24.5%나 된다. 자기 所有이면서 자신 마음대로 못하는 山林을 가지고 山主의 자발적 山林投資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Ⅲ. 山林生産 基盤과 經營形態

1. 山林所有構造의 變化

前章에서는 林業, 山林, 山村이 당면하고 있는 構造的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本章에서는 山林을 소유하고 있는 林家의 입장에서 현재 林業部門이 이러한 당면 問題點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전체 山林面積의 대부분이 民有林으로 구성되어 있고 國有林은 20%에 불과하다. 私有林은 전체의 72.1%로서 山林의 절

表 1 地域別 戶當 所有規模別 山主數

規模別 \ 地域別	京畿安城郡	忠南瑞山郡	忠北淸原郡	平均
~0.2ha	242(53.8)	160(19.1)	289(31.2)	691(31.2)
0.2~0.4ha	35(7.8)	92(11.0)	112(12.1)	239(10.8)
0.4~0.6ha	33(7.3)	61(7.3)	84(9.1)	178(8.0)
0.6~0.8ha	22(4.9)	59(7.0)	77(8.3)	158(7.1)
0.8~1.0ha	15(3.8)	67(8.0)	35(3.8)	110(5.3)
1.0~1.5ha	28(6.2)	123(14.7)	99(10.7)	250(11.3)
1.5~2.0ha	18(4.0)	74(8.8)	69(7.5)	161(7.3)
2.0~3.0ha	15(3.3)	61(7.3)	52(5.6)	128(5.8)
3.0~4.0ha	9(2.0)	30(3.6)	22(2.4)	61(2.8)
4.0~5.0ha	7(1.6)	13(1.6)	13(1.4)	33(1.5)
5.0~7.0ha	6(1.3)	10(1.2)	10(1.1)	26(1.2)
7.0~10 ha	1(0.2)	9(1.1)	5(0.5)	15(0.6)
10ha이상	19(4.2)	71(8.5)	59(6.4)	149(6.7)
計	450(100.0)	837(100.0)	926(100.0)	2,213(100.0)

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ha當 蓄積은 國有林의 경우 45.2m³로서 私有林의 17.3 m³에 비하여 3배나 많다. 私有林은 방치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私有林經營의 가장 큰 問題點은 所有規模가 극히 零細하다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전체 山主數의 88.3%가 5ha 이하의 所有規模를 가지고 있고 10ha 이상 所有山主 比率은 4.3%에 불과하다. 山主 또한 不在山主數가 전체 山主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面積으로는 20.1%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 統計値가 1971년말 자료이기 때문에 13년이 경과한 지금으로서는 더 많은 不在山主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많은 林地가 他用途로 전용되었고 所有構造도 많이 변하였다. 農村住民의 移出과 함께 在村山主가 都市居住 不在山主로 변모한 사례도 상당수 있다. 많은 林地가 도시인의 投機對象으로 所有가 바뀐 사례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地價上昇과 함께 地價差益과 所有主의 所有慾으로 많은 林地가 分割되고 있다. 따라서 10년전의 所有構造와 현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表 1〉은 3個 郡을 표본으로 林野臺帳을 조사한 것으로 地域別 戶當 所有規模別 山主數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0.2ha 이하의 극히 적은 규모의 林野를 소유하는 계층이 전체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首都圈에 해당하는 安城郡의 경우는 0.2ha 이하가 무려 5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首都圈에서 멀수록 그의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大都市 주변이나 交通이 좋은 지역의 林野일수록 小規模로 분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規模別 林野所有農家를 보면 0.6ha 미만의 林野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50%이며 1ha 이하의 林野所有家口는 62.4%나 되었다. 이는 1971년 조사한 1ha 미만 山主數 55.9%보다 더 증가한 숫자이다. 또한 1~5ha 所有山主는 28.7%로서 1971년 조사치 32.4% 보다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10ha 이상 山主는 本調査에서는 6.7%인데 비하여 1971년 조사치는 4.3%로 中大規模의 增加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林野所有構造가 1971년에 비하여 점차 零細化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많은 林地가 所有移轉 또는 분할되었거나 林野面積에 비하여 山主數가 증가하였다는

表 2 林野臺帳上 登載되어 있는 所有者居住地別 所有面積 단위 : ha, 名

地域別 / 所有者居住地	京畿安城郡			忠北淸原郡			忠南瑞山郡			計		
	山主數	總面積	戶當平均面積	山主數	總面積	戶當平均面積	山主數	總面積	戶當平均面積	山主數	總面積	戶當平均面積
本村	68 (15.1)	61.9 (16.1)	0.91 (94.5)	300 (32.4)	604.3 (39.1)	2.01 (120.4)	498 (59.4)	720.4 (54.4)	1.45 (91.8)	866 (39.1)	1,386.6 (42.6)	1.60 (108.8)
本郡他村	170 (37.8)	129.2 (33.5)	0.76 (88.4)	382 (41.3)	451.9 (29.2)	1.18 (70.7)	230 (27.4)	310.1 (23.4)	1.35 (85.4)	782 (35.3)	891.2 (27.4)	1.14 (77.6)
本道他郡	37 (8.2)	41.9 (10.9)	1.13 (131.4)	64 (7.9)	117.3 (7.6)	1.83 (109.6)	18 (2.2)	20.3 (1.5)	1.13 (71.5)	119 (5.4)	179.4 (5.5)	1.51 (100.7)
本道地方都市	12 (2.7)	43.2 (11.2)	3.60 (148.6)	53 (5.7)	99.9 (6.5)	1.89 (113.2)	14 (1.7)	18.0 (1.4)	1.28 (81.0)	79 (3.6)	161.2 (5.0)	2.04 (138.8)
他道都市	13 (2.9)	13.4 (3.5)	1.03 (120.0)	74 (8.0)	123.6 (8.0)	1.67 (100.0)	13 (1.6)	20.7 (1.6)	1.59 (100.6)	100 (4.5)	157.7 (4.8)	1.58 (107.5)
서울	147 (32.7)	94.4 (24.5)	0.64 (74.4)	50 (5.4)	97.2 (6.2)	1.94 (116.2)	55 (6.6)	221.6 (16.7)	4.03 (255.1)	252 (11.4)	413.1 (1.3)	1.63 (110.9)
其他大都市	3 (0.6)	1.2 (0.3)	0.42 (48.8)	3 (0.3)	72.7 (3.4)	17.6 (105.4)	6 (0.7)	12.3 (0.9)	2.06 (130.4)	12 (0.5)	66.3 (2.0)	5.53 (376.2)
外國	—	—	—	—	—	—	3 (0.4)	0.8 (0.1)	0.25 (15.8)	3 (0.1)	0.8 (—)	0.25 (17.0)
計	450 (100.0)	385.3 (100.0)	0.86 (100.0)	926 (100.0)	1,546.9 (100.0)	1.67 (100.0)	837 (100.0)	1,324.1 (100.0)	1.58 (100.0)	2,213 (100.0)	3,256.3 (100.0)	1.47 (100.0)

말이다. 특히 大都市 주변 林野所有構造가 더욱 零細化되고 있다. 安城郡의 경우 0.6ha 이하의 山主數가 68.9%이며, 1ha 이하가 77.1%로서 약 8할이 1ha 이하의 林野를 소유하고 있다.

〈表 2〉는 地域別 所有者 居住地別 山主數와 林野面積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本村居住와 他村이라도 本郡에 거주하는 所在山主의 수가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不在山主가 3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71년 調査値의 不在山主 25.6% 보다 훨씬 많은 不在山主가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不在山主 35.6% 가운데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大都市居住 山主가 12%, 기타 都市居住 山主까지 합하면 16.4%로서 不在山主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農家數와 總面積 모두 都市近郊에서 僻地로 갈수록 本村居住 山主比率이 증가하고 있다. 安城郡의 경우 本村居住 山主比率이 15.1%에 所有面積이 16.1%이었다. 이에 비하여 都市에서 약간 떨어진 淸原郡 梧倉面의 경우는 그의 比率이 각각 32.4%, 39.1%로 나타나고 있다. 都市에서 멀리 떨어진 僻地에 있는 忠南 瑞山郡은 59.4%, 54.4%로 山主와 林野面積의 절반 이상이 本村居住로 나타나고 있다. 所在山主 또한 僻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所在山主라고 할 수 있는 本村居住 山主와 本郡他村居住 山主의 비율이 安城郡의 경우는 52.9%에 面積比重은 49.7%인데 비하여 淸原郡은 그의 比率이 각각 73.7%, 68.3%, 瑞山郡은 86.8%, 77.8%로 나타났다. 결국 林野臺帳상에 나타나 있는 統計値로 보면 京畿地域 林野의 약 2분의 1이 不在山主의 山地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比重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安城郡의 경우, 서울 등 都市山主의 比率이 36.2%에 전체 면적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은 林野臺帳 資料를 분석한 것이지만 對地調査 결과, 林野臺帳상의 所有構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林野臺帳上의 所在山主 비율이 74.4%에 面積比重이 70%인데 비하여 對地調査 결과, 所在山主의 비율은 67%로 약간 감소한 결과를 보였지만 面積比率은 49%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서울 등 都市居住 山主의 비중이 20.7%로

表 3 對地調査에 의한 所有者住居地別 林野面積

地域別 / 所有者居住地	京畿安城郡			忠北淸原郡			忠南瑞山郡			計		
	山主數	總面積 (ha)	平均面積 (ha)	山主數	總面積 (ha)	平均面積 (ha)	山主數	總面積 (ha)	平均面積 (ha)	山主數	總面積 (ha)	平均面積 (ha)
本村	43 (11.6)	39.8 (10.3)	0.83 (89.2)	206 (29.5)	405.8 (26.2)	1.97 (88.7)	352 (54.3)	499.8 (37.7)	1.42 (69.6)	606 (34.4)	945.4 (29.0)	1.56 (84.3)
本郡他村	125 (30.2)	88.8 (23.0)	0.71 (76.3)	265 (38.0)	318.0 (20.6)	1.20 (54.1)	184 (28.4)	244.7 (18.5)	1.33 (65.2)	574 (32.6)	651.5 (20.0)	1.14 (61.6)
本道他郡	37 (8.9)	39.2 (10.2)	1.06 (113.9)	55 (7.9)	99.6 (6.4)	1.81 (81.5)	18 (2.8)	20.3 (1.5)	1.13 (55.4)	110 (6.3)	159.1 (4.9)	1.45 (78.4)
本道地方都市	26 (6.3)	32.5 (8.4)	21.5 (134.4)	63 (9.0)	114.7 (7.4)	1.82 (82.0)	16 (2.5)	20.0 (1.5)	1.25 (61.3)	105 (5.9)	167.2 (5.1)	1.59 (85.9)
他道都市	18 (4.3)	25.0 (6.5)	1.39 (149.5)	52 (7.4)	81.6 (5.3)	1.57 (70.7)	6 (0.9)	8.28 (0.6)	1.38 (67.6)	76 (4.3)	114.8 (3.5)	1.51 (81.6)
서울	151 (36.5)	153.8 (39.9)	1.02 (109.7)	54 (7.7)	474.5 (30.7)	8.78 (395.5)	66 (10.2)	518.7 (39.2)	7.86 (385.3)	271 (15.4)	1,147.0 (35.2)	4.23 (228.6)
其他大都市	9 (2.2)	6.2 (1.6)	0.69 (74.2)	3 (0.4)	52.7 (3.4)	17.6 (793.1)	6 (0.9)	12.3 (0.9)	2.06 (100.9)	18 (1.0)	71.2 (2.2)	4.00 (216.2)
外國	—	—	—	—	—	—	3 (0.004)	0.8 (0.001)	0.25 (12.3)	—	—	—
計	414 (100.0)	285.3 (100.0)	0.93 (100.0)	698 (100.0)	1,546.9 (100.0)	2.22 (100.0)	648 (100.0)	1,324.1 (100.0)	2.04 (100.0)	1,760 (100.0)	3,256.3 (100.0)	1.85 (100.0)

증가하였고 면적은 전체의 40.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마디로 在村山主의 林野面積이 대폭 감소한 반면 서울 등 都市山主의 林野所有 비중이 대폭증가하고 있다. 開發可能한 林野가 대부분 서울 등지의 都市山主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都市人의 林野 廣占化現象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어느 곳에서나 일반화되고 있다. 京畿 安城郡의 경우, 都市山主의 비율이 43%, 林野面積 비율이 48%를 점하고 있다. 淸原郡 또한 都市山主의 비율이 15.4%, 林野面積 비율이 39.4%이고, 瑞山郡의 경우에도 그의 비율이 각각 12%, 40.7%로 상당한 면적을 都市山主가 점하고 있다. 단지 安城郡의 경우는 都市山主의 戶當 소유면적이 1ha전후의 소규모인데 비하여 淸原郡과 瑞山郡은 7~8ha로 비교적 큰 규모의 林野를 소유하고 있다. 安城郡과 같이 地價가 높은 지역은 都市資本主의 일정한 금액으로는 小規模 林野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都市山主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액수의 돈으로 살 수 있는 林地面積 만큼을 구입하고 있다. 곧 都市山主의 林野所有 목적은 山林經營에 있다기 보다 일종의 投機目的으로 林野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山主別 林野所有面積 比重을 보면 不在山主의 林野所有面積 비율이 50.1%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安城郡의 경우는 전체 林野面積의 76.7%가 不在山主의 所有로서 山林經營은 완전 포기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林野臺帳상의 山主數는 2,213명인데 비하여 對地調査 결과 1,76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만큼 山主當 所有面積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林野의 財產的價値가 증대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林野臺帳상 호당 平均面積이 1.47ha인데 비하여 對地調査 결과 1.85ha로 증가하였다.

13年前의 통계와 비교하여 山林所有構造의 兩極化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零細所有規模의 증가와 中大規模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中規模 山林所有農家의 붕괴를 의미한다. 財產增殖을 위해 中規模山地를 分割, 小規模山地를 구입함으로써 일어나는 小規模山地 投機와

規模擴大로 볼 수 있다. 이러한 構造變化가 山林投資에 의한 經營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變化라고는 볼 수 없다. 한 마디로 林業生産基盤의 붕괴를 의미하며 經濟社會的 여건의 변화에 山林所有農家가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다.

2. 山地利用構造의 不合理性

山地利用은 山地가 위치한 지역의 地理的 地形的 氣候的 社會經濟的 제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山地는 대부분 林地로서 山林一邊倒로 이용해 왔을 뿐 山地를 보다 生産的인 방향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所有山地 가운데 地形的으로 평평한 緩傾斜地를 개간하여 田地로 이용, 부족한 食糧作物이나 菜蔬를 재배하는 데 이용해 왔다. 때로는 밤, 감 등 有實樹를 식재하여 種實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의 面積은 山地 下端의 적은 일부 지역만을 이용한 採取的 有實樹栽培에 그쳤다.

또한 農家의 주요 燃料源이 林産燃料에 의존하였고 부족한 堆肥나 綠肥를 생산하기 위해서 山林을 伐採 이용해 왔거나 落葉을 채취해 왔을 뿐 林木生産地로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고대나 중세의 林地制度가 禁松을 위주로 한 兵船 또는 國防用材 生産을 위해 國用材를 생산해 왔다. 따라서 個別農家의 木材生産機能이 거의 없었다.

農家가 木材生産機能을 담당할 수 있었다면 大面積 粗放經營의 利點을 발견하고 山地의 소유 또한 大規模爲主의 所有 및 利用構造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山地의 利用價値가 적었고 家計充足形態의 農用林業에 그쳤기 때문에 山地利用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특히 중요한 山地利用形態로서 墓地의 중요성이 있었다. 儒敎的 觀念下의 祖上崇拜와 墓所三年拜禮의 풍속은 村落과 가까운 立地條件이 좋은 산지의 墓地化를 가속시켰다. 傾斜가 완만하고 風致가 좋은 산지는 거의 墓地로 이용되었고 결국 산지의 零細化와 分割化가 촉진되었다. 따라서 山地利用도 地形地理的 위치와 社會經濟的 여건에 관계없이 墓地使用에 알맞도록 경계가 그어졌다.

人口增加와 함께 食糧生産의 중요성과 地價上昇 등의 각종 요인으로 산지 가운데 평평한 곳은 거의 田畓으로 개간되어 山地利用構造의 複雜化現象이 나타났다. 丘陵과 丘陵 사이의 緩傾斜地는 거의 田畓으로 메워져 谷間의 田畓이 계단처럼 늘어서 있다. 따라서 兩邊의 林野는 谷間의 田畓에 필요한 農用資材供給源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山地는 土地利用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우리 나라와 같은 水田爲主의 畓作經營構造下에서는 山地는 農業 및 農地擴大의 制約要素였다. 심지어는 林野 가운데 田畓이 위치한 곳도 있다. 筆地와 筆地 사이의 경계 또한 불규칙하며 그의 形狀도 가지각색이다. 山地의 計劃的 利用을 규정하는 어떤 形態의 규제도 가미되어 있지 않다. 稜線을 중심으로 溪谷 하나 하나를 경계삼아 무질서하게 분할해 놓은 느낌이다. 따라서 山地利用은 燃料林과 墓地 그리고 階段式田畓과 細分된 林地가 山地利用의 전부였다.

이와 같이 小規模로 분할된 山地利用 構造로 인한 構造的 性格으로 山地利用을 저해하고 있다. 忠南 瑞山郡 聖淵面 海城里 山 37에서 산 49까지의 林野 경우, 山林으로 開發 이용하기에 적합한 地形的 與件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總面積 28ha에 31筆地로 분할되어 있다. 31筆地中 山主는 28명으로 그 가운데 都市山主가 9명

이나 된다. 결국 28ha의 山林을 조성하려면 都市山主의 9명을 포함한 28명의 山主를 설득해야 하며 45基의 墳墓를 이장해야 한다. 물론 山主 가운데는 2명의 宗中山主와 3명의 3인 이상 명의로 된 山地가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소유 및 利用構造下에서 소규모의 林業經營體 하나를 육성하기에는 상당한 難題를 극복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사례는 筆地當 規模가 큰 瑞山郡의 경우지만 安城郡과 같은 경우에는 정도가 심하다. 安城郡 大德面의 경우, 조건을 갖춘 林野 12ha를 조사해 본 결과, 山主가 무려 21명이나 되었고 그중 16명이 서울 등 大都市居住 山主였다. 더욱 地價가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있고 계속 上昇趨勢에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山林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山地利用構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山地改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農林家的 經營形態

山林經營은 所有山林에 人爲的行動을 가함으로써 시작된다. 人爲的行動의 크기에 따라 經營形態에 차이가 생기게 되며 經營形態는 生產規模의 제약을 받게 된다. 林業經營은 大規模山地의 粗放的經營에서 收益性이 기대되는 規模의 經濟性이 강조되고 있다.

〈表 4〉는 山林所有規模別 所有目的을 나타낸 것이다. 〈表 4〉에서 1ha 미만의 山林所有者는 대부분 墓地利用을 위해 소유하고 있으며 10ha 이상 계층에서 비교적 山林收益을 목적으로 한 林野所有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ha 이상 所有山主는 전체의 79.3%가 山林收入을 목적으로 한 山林所有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所有規模가 클수록 山林經營體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5ha 이하의 所有山主 가운데 상당수가 山林을 財產增殖 또는 資產價値로서 소유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전체 私有林 중 5ha 미만 山林所有主가 소유하고 있는 總山林面積의 38.5%가 墓地 또는 財產增殖價値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私有林面積의 52%를 차지하는 5~100ha 규모의 山林所有主의 經營可能性은 어떨까가 문제이다. 이들 階層의 經營行動은 앞으로 韓國林業經營의 주체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表 5〉는 〈表 4〉의 5ha 이상 山林所有主 290戶에 대한 就業構造를 조사한 것이다. 〈表 5〉에서 보면 5ha 이상 山林을 소유하고 있는 山主라도 山林所得이 전혀 없는 家口가 27.2%나 된다 그리고 林業을 主業으로 하는 林家의 대부분이 農業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山林所有農家의 대부분이 農業을 主業으로 하고 있다. 즉 林業이 主業인 63戶(이중 48戶는 委託經營)의90.5%가 副業으로 農業을 하고 있으며 主業이 農業인 161戶 가운데 78.3%가 副業으로 林業을 하고 있다. 商業이나 會社員, 公務員 기타 부분에 就業하는 家口(66戶)로서 林業을 副業으로 하는 家口는 13.6%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山林所有家口의 특성은 農業과 林業을 兼業 또는 副業으로 하는 農林業이 복합된 經營形態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山林所有家口의 性格을 農家 또는 林家라기보다 農林家로서 農業에 주력하고있다.

山林經營體로서 가능성이 큰 5~100ha 所有階層의 山主 또한 副業的 經營形態로 投資餘力이 크지 못한 農商業 從事者이다. 이로 보아 私有林 所有主의 어느 階層에서도 정상적인 林業經營(山林投資)과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는 곧 山主의 自發的인 林業經營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表 4 山林所有主의 山林所有目的 단위 : 名(%)

所有規模	所有目的						計
	墓地利用	資產價值	山林收入	財產增殖	開墾草地	其他	
1ha 미만	434(79.9)	26(4.4)	—	114(19.2)	18(3.0)	3(0.5)	595(100.0)
1~2 ha	266(68.9)	18(4.7)	1(0.2)	65(16.8)	23(6.0)	13(3.4)	386(100.0)
2~5 ha	136(52.7)	12(4.7)	6(2.3)	63(24.4)	21(8.1)	20(7.8)	258(100.0)
5~10ha	19(13.1)	18(12.4)	53(36.6)	42(29.0)	12(8.3)	1(0.6)	145(100.0)
10~20ha	8(10.3)	5(6.4)	46(59.0)	11(14.1)	5(6.4)	3(3.8)	78(100.0)
20~30ha	2(5.3)	2(5.3)	24(63.2)	5(13.2)	5(13.2)	—	38(100.0)
30ha 이상	—	1(3.4)	23(79.3)	3(10.3)	1(3.4)	1(3.4)	29(100.0)
計	865(56.6)	82(5.4)	153(10.0)	303(19.8)	85(5.6)	41(2.7)	1529(100.0)

註 : 規模別 戶數는 가능한 大規模階層을 中心으로 표본을 정한 것임.

表 5 山林所有主의 就業構造 단위 : 戶

主業 \ 副業		家口數	戶當山林面積	第一所得					第二所得						林業所得없음
				農業	林業	商業	會社및公務員	其他	農業	林業	商業	會社및公務員	其他	없음	
			ha												
自營	農業	136	10.9	—	109	13	6	8	—	11	2	—	3	120	37
	林業	15	39.5	9	—	4	1	1	—	3	—	—	1	11	—
	商業	32	8.2	18	6	—	—	8	2	15	—	—	1	16	11
	會社및公務員	11	13.3	4	2	3	—	2	3	4	—	—	—	4	5
	其他	23	5.8	18	1	2	—	2	—	1	—	—	—	22	21
委託經營	農業	25	18.3	—	17	1	—	2	—	—	—	—	—	—	5
	林業	48	33.2	48	—	—	—	—	—	—	—	—	—	—	—
計		290	—	97	135	23	7	23	5	34	2	—	5	173	79

앞으로 林業經營은 山林所有主의 性格과 特性에 맞는 農林業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山林所有主의 性格과 特性으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規模擴大에 의한 林業經營 誘導方案도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對策 및 結論

이상으로 林業, 山林, 山村(農林家)이 안고 있는 構造的인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高度成長에 따른 經濟社會的 變化에 따라 林業部門에 제기되는 林業構造 調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林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林政의 方向을 生產政策 중심에서 支援政策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政策受容者인 農林家의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한 山林生產만을 강조하는 政策은 實效를 거두기 힘들다.

첫째, 山林所有者의 대부분이 山林을 農業의 副業形態로 소유하고 있는 農林家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農林業 개념에서 山林政策이 추진되어야 한다. 農業을 경영하면서 남는 時間과 資本을 이용하여 林業으로부터 所得을 올릴 수 있는 農家林業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農業이 발전해야 林業이 발전할 수 있고 林業이 발전해야 農業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林業은 農業의 補完的 役割로서 農家의 所得增大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農業에 종사하면서 林業을 경영 所得을 올릴 수 있는 農林複合經營 또는 農業(畜產포함)과 林業이 相互補完的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支援해 나가야 한다. 農家가 山林에서 얻어지는 所得을 再投資하고 여기서 形成되는 林業資本으로 規模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山林이 農家와 격리된 상태에서 農家所得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農家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林政과 農政은 農林家의 所得政策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山林廳의 農水產部 移管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林產物 輸出入政策이 전면 再調整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값싼 輸入材를 중심으로 한 木材市場構造 하에서는 장래 林業經營의 收益性은 물론 育林의 어려움도 크다. 그간 林產物 貿易政策이 國內林業 사정을 전혀 도외시하고 木材產業만을 위하여 外材確保에 급급한 감이 없지 않다. 林產物 輸出入이 輸出產業 支援이라는 商工政策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고 林政 또한 그곳에 편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도리어 林政이 海外山林資源 輸入에 열을 올리는 데 앞서 왔으며 그 결과 國內林業生產者 보다 木材產業의 利益을 위해 공헌해 왔다고 볼 수 있다. 外材輸入이 國內林業에 주는 충격을 最少化하면서 國內林業振興을 위한 關稅政策을 포함한 輸出入政策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大木材會社가 장악하고 있는 木材流通市場에 林政이 調整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한다.

한편 輸入大徑材 爲主의 木材產業構造를 개편하여 木材의 海外依存度를 줄여 나가는 한편 國內 小徑材의 需要擴大를 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小徑材의 需要擴大策 없이는 育林生產의 非效率化와 일정 수준의 海外 大徑材의 계속적 輸入은 불가피하다.

세째, 林業稅制 및 林野管理構造의 再編이 필요하다. 현재 政府의 公的規制를 받고 있는 山林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는데 이들 公的規制 山林은 자신의 소유이면서 政府로부터 施業制限을 받고있는 곳으로 엄연한 財產權 侵害이다. 그러면서 財產稅, 所得稅, 讓渡稅, 相續稅 등 각종 稅金을 부과하고 있다. 私有財產이 公共의 규제를 받으면서 각종 租稅負擔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租稅均等의 法則에도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最終生產物인 山林所得을 얻기 위해 林業을 경영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다. 山林은 木材生產뿐 아니라 有形無形의 便益을 제공하기 때문에 公共이 山林에서 얻는 便益만큼을 山林所有者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稅制上의 有利性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公共과 山林所有者와의 紛爭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山林利用이 높은 都市近郊에서 현저히 나타날 전망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政府가 公共需要가 높은 都市周邊 등의 山林地는 國有林으로 대체하여 私有林의 所有 및 經營權을 보호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管理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 代替된 私有林은 林業部門에 再投資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林業金融制度를 수립하는 방안도 연구해 봄직하다. 무엇보다 公的規制가 높은 山林을 國有林으로 대체해 나가는 林野管理構造의 改善이 필요하다.

네째 山村勞動力을 육성하고 山林資源開發을 위해 山村開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 山村地域의 人口流出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山林을 경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량의 山林勞動力이 필요한데 山村은 이의 供給基盤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山地를 地域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方案(草地, 開墾)도 검토되어야 한다. 山村開發은 山林資源 이용과 農家所得 증대

라는 개념에서 農水產資金을 투입한 山村振興策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農林家의 실정상 小規模 小資本에 의한 集約的 林業經營이 바람직 하지만 山林勞動力 부족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 資本의 集約化와 勞動集約化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결국 粗放經營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2000년대 韓國林業이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문제는 集約經營에 필요한 資本調達과 勞動力需給上의 어려움이 있지만 地域住民과 協業을 통한 해결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林業生產基盤을 안정시키고 山林生產空間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山地制度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山林生產政策은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할 制度는 없다. 都市山主의 무분별한 山地占有를 방지하기 위하여 山林所有를 稅制로서 제한할 수 있는 投機防止對策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都市의 무작정 팽창을 억제하고 山林生態界의 보전을 위해 林業地帶에 林業經濟圈域을 설정하는 山地制度의 확립도 검토해 봄직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무질서한 山林區劃整理와 所有制度 개편, 林地構造改善을 포함한 山地改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農業, 林業, 畜產業을 총망라한 山村開發 차원에서 새로운 土地利用計劃을 세우고 그 범주 안에서 林業의 위치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林政 또한 綜合林政體制로의 구축이 필요하다. 林業은 林業 그 자체로서 成立할 수 없다. 林業을 둘러싸고 있는 農畜產業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하며, 林業構造에 直間接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輸出入政策, 林產加工 및 木材產業, 農林家所得政策, 金融, 稅制, 流通市場價格 등 전체를 총망라한 施策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中短期的 대책과 함께 農家林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山林資源의 保育과 生產性增大를 위한 각종 施策을 추진해 나가면서 長期的으로는 專業的인 林業經營體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規模의 經濟性과 共同經營의 유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山林委託經營體制의 확립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林業金融制度 및 農林家 주체의 山林組合 育成方案도 제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00년을 향한 새로운 林業政策은 農林家의 育成과 山林과 山村, 山主를 農業과 어떻게 연관시켜 所得을 증대시킬 것인가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寅表, "山林과 資源管理," 山林資源의 合理的 管理 및 開發에 관한 세미나 主題發表論文, 韓國林學會, 1983.

李廣遠, 「林地開發과 山地農業 發展方向 : 農地, 草地 山林의 綜合的 利用開發」, 研究報告 7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山地의 多目的 利用開發方向 : 政策目標와 基本方向을 中心으로," 「延圭執敎授回甲記念論文集」, 1982, pp. 304-348.

———, "山林과 草地畜產과의 相互補完性 檢討," 「韓國草地學會誌」, 第 4 券第 3 號, 1984. pp. 167—174

鄭佐容, 鄭永觀外 3 人, "林野地의 開發 및 利用에 관한 調査研究," 「慶尙大學校 農業研究所報告」, 第17-1號, 1983.

半田義雄, "過疎地域の 課題と 對策の 方向," 「地域開發」, 89 : 3-4, 1972.

船越昭治, 「日本の林業, 林政」, 農林統計協會, 1981.

林業構造研究會編, 「日本經濟と林業・山村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978.

森巖夫, 「山の政治と經濟」 淸文社, 1977.

鹽谷勉, 黑田迪夫, 「林業の展開と山村經濟」, 御茶の水書房, 1972.